

선 아전절제술로 확진된 갑상선의 악성 림프종 1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환자는 53세 여자로서 약 3개월 전부터 서서히 커지면서 경미한 압통을 동반하는 4×6cm 크기의 전경부 종괴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내원 후 시행한 갑상선 기능 검사 소견은 정상이었다. 갑상선의 종괴를 의심하여 3회에 걸쳐 세침흡인세포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세침 흡인 세포 검사상, 혈액성 배경에 중간 크기 정도의 비정형성을 보이는 다수의 미성숙 림프구양 세포들이 판상 혹은 개개의 세포로 흩어져서 도말되었고, 유사 분열도 다수 관찰되었다. 또한 이들 림프구양 세포들 사이로 파괴된 핵편을 많이 탐식하는 조직구가 다수 관찰되었다. 이상의 소견으로 조혈성 악성 종양, 특히 악성 림프종을 의심하여 갑상선 아전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절제된 갑상선은 세개의 조직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육안 소견상 절단면은 광범위한 출혈과 함께 부분적으로 생선살과 같은 양상을 보여주었다. 접착도말세포검사상 원형 또는 난원형의 핵과 세포질 내에 다수의 공포를 가지는 균일한 크기의 종양 세포를 볼 수 있었다. 조직검사상, 종양은 비구형성 소림프구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군데군데 세포질이 풍부한 조직구가 산재하여 starry sky pattern을 보이는 Burkitt 림프종이었고, 면역조직화학검사상 B세포 표지자인 L26에 양성 반응을 보였다. 종양 주변에 남아있는 갑상선 실질내에서는 풍부한 호산성 과립을 가지는 Hurthle 세포 및 뚜렷한 배 중심을 가지는 림프여포가 관찰되었고, 종양과 이들 림프여포와의 이행 부위가 관찰되어 림프종이 Hashimoto씨 갑상선염에서 기원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전자 현미경 검사소견상, 종양 세포의 핵은 둥글고, 하나 또는 두개의 핵인을 가지며, 세포질 내에서는 다량의 glycogen과 소수의 지방성 공포가 관찰되었다.

## 17. 갑상선으로 전이된 대장암의 세침흡인세포학적 소견

- 1례 보고 -

### FNAC of Metastatic Adenocarcinoma of Thyroid Gland from the Colon

순천향대학병원 해부병리과

곽정자, 권계현, 진소영, 이동화

갑상선의 전이성 암종의 빈도는 1.9~26.0% 정도이며, 암종의 원발 장기는 부검을 대상으로한 경우에는 유방, 폐, 신장 및 악성흑색종의 순이었고, 수술적으로 제거한 조직의 경우 신장, 대장, 폐, 유방, 악성흑색종의 순으로 되어있다.

젊고 건강해보이는 사람이 갑상선의 단독결절을 주소로 내원하였을 때 일반적으로 전이성 암종의 가능성을 생각하기 보다는 원발성 암종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저자들은 건강하고 젊은 여자의 갑상선에서 발생한 대장에서 전이된 것으로 생각되는 선암종 1례를 경험하고 보고하고자 한다.

37세 여자환자는 약 4개월 전부터 갑자기 쉼 목소리가 나오고 전경부에 종괴가 만져져서 내원하였다. 과거력상 7년전에 대장의 다발성 용종으로 대장절제술을 시행하였고 4년전 자궁경부의 상피내암으로 자궁적출술을 시행받았다. 이학적소견상 갑상선 좌엽에 약 4×3cm되는 단단한 결

절이 축지되었다. 초음파 검사상 양쪽엽이 모두 커져있었으며 좌엽에 경계가 명확한 결절이 있어서 세침흡인세포검사를 시행하였다.

도말소견상 점액성 배경에 다수의 손가락 모양의 유두상 군집과 개개로 흩어져 있는 비정형성 세포가 관찰되었다. 유두상 군집의 변연부는 핵이 울타리 모양으로 배열하고 있었다. 세포의 핵은 크고 둥글면서 변연부가 뚜렷하였고 염색질은 망상이며 뚜렷한 핵소체가 관찰되었다. 간혹 포말성 조직구와 이형성이 심한 비정형성세포 또는 다핵성거대세포도 혼재되어있었다. 육안소견상 정상적인 조직은 일부만 남아있고 대부분이 종괴로 대체되어 있었으며 절단면에서 다수의 점액이 차있는 미세낭이 관찰되었다. 조직소견상 풍부한 점액을 형성하는 선암종이 관찰되었으며 면역조직화학검사상 종양세포는 CEA 에 강양성을 보여 대장으로부터 전이된 암종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대장경검사를 시행한 결과 3개의 선종성 용종이 있었고 그중의 한개에서 상피내암이 관찰되었다.

## 18. 신경아세포종과 신경절아세포종의 세포학적 특징

### Cytologic Characteristics of Neuroblastoma and Ganglioneuroblastoma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해부병리과

이응석, 김한겸, 김인선

신경아세포종과 신경절아세포종은 교감신경절 수질의 nonchromaffin cells에서 유래되는 종양으로 신경아세포로부터 신경절세포로의 일련의 연속적인 분화를 보인다. 신경아세포종은 미분화성 신경아세포를 닮은 세포로 구성된 종양으로 중추신경종양을 제외하고 어린아이에서 가장 흔한 악성 종양이며 부신수질에 호발한다. 신경절아세포종은 신경절세포와 분화된 신경아 세포로 구성된 종양으로 신체 여러곳에서 발생하며, 특히 후종격동에서 호발한다.

연자들은 최근 세침흡입검사로 진단한 14개월된 남아의 부신수질 신경아세포종과 2세된 남아의 후종격동 신경절아세포종을 경험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세침흡입검사상 신경아세포종의 종양세포들은 크기가 비교적 작으며 둥글거나 타원형으로 세포경계가 불분명하였고, 종양세포들이 괴사성 배경속에 개개로 흩어져 있거나 서로 모여 2차원적인 군집을 이루고 있었다. 이 종양세포들의 크기와 모양은 비교적 균일하였고, 세포질은 거의 없었으며, 핵은 과염색성이었고 핵소체는 없었고 세포들 사이를 가는 섬유성 물질이 둘러싸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신경절아세포종의 세침흡입검사소견은 신경아세포종에서 관찰되었던 종양세포들과 함께 풍부한 분홍색 세포질을 가진 커다란 세포들이 함께 관찰되었으며, 이 세포들의 핵은 둥글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었고, 핵소체는 과염색성이며 한개 또는 여러개의 핵소체를 갖고 있었다.